

보도일시	2025.5.22.(목) 즉시 배포
담당처	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<진짜 대한민국> 중앙선대위 후보 총괄특보단(단장 : 안규백)
담당자	박영화 팀장(010-4652-0520) / 김윤진 팀장(010-5672-8877) / 나호선 팀원(010-9073-1328)

“전북 경제인 1만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”

- 22일(목) 전북도의회 브리핑룸 30여개 경제단체 소속 1만여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
- 경제단체 “이재명 후보 전북 지역경제를 반드시 부활시키겠다는 약속 지킬 것”
- 안호영 총괄특보단 수석부단장 “전북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 대한민국을 바꿀 것”

- 전북 지역 경제단체 소속 1만여 명의 경제인들이 5월 22일(목) 9시 30분, 전북 특자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.
- 이번 지지선언에는 전라북도 여성경제인연합회, 공예협동조합, 가구협회, 중소기업연합회, 자영업·소상공인단체 등 30여 개 단체가 참여했으며, 이들 단체는 오랜 기간 전북 지역경제를 지탱해온 주축들이다.
- 지지선언에 참여한 경제인들은 “전북은 수도권 중심, 대기업 중심의 정책 속에서 늘 소외되어 왔다”며 “불공정·불균형·저성장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이재명 후보의 실행력과 정책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”고 밝혔다.
- 경제인 대표로 나선 이명기 대표는 “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고, 실천으로 돌파해온 유능한 리더”라며 “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고,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온 사람이다. 전북 경제를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이라 믿는다”고 강조했다.
-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 수석부단장인 안호영 의원은 “전북을 지켜온 1만 경제인의 뜨거운 지지에 깊이 감사드린다”며 “이 자리는 단순한 지지선언이 아니라, 무너진 민생경제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겠다는 국민의 외침이자 결단”이라고 말했다.

□ 이어 “차디찬 민생경제의 현장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온 전북 경제인들의 절박함이 대한민국 변화의 시작”이라며 “전북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 곧 대한민국을 바꾸는 거대한 물결이 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※ 별첨 : 행사사진

